

치 痔

질 疾

은

고

칠

수

있

나

● 김예흠

이른바 「질」자가 붙는 병치고 잘 낫는 병이 없다.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다. 병의 형태도 가지가지이고, 치료법도 가지가지다 — 치질도 그런 병의 한가지. 그러면 치질은 왜 생기며, 완전하게 고칠수도 있을까.

이름에 「질」자가 붙는 병이 잘 낫는 병이 없다. 간질·나질(매독)·풍질(문둥병)등 모두 골치 아픈 병으로 옛부터 일컬어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온것 같기도하고 또 갑자기 죽지도 않는병이다. 이것을 만성병이라고한다. 치료법과 병의 형태도 만태각양이다. 사람마다 의사라고 약도 만태여서 시키는대로 막상 써보면 별로 신통한 약도 없다. 좀 나은것같으면 다시 발생한다. 어디까지 나은것인지 확실치 않은 것이 질병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다는 표준은 아프다든가 하는 증상이 정상으로



어느 정도 가까와지는 것을 표준으로 하겠다. 다시말해서 일상 생활에 별고통없이 지낼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은 의사 아닌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정도로 저자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치질이 발생하는 항문의 특수성이다. 항문은 해부학적으로 소화기의 말단이다. 대장(大腸)은 소장(小腸)이 끝나는 회맹부(回盲部)에서 시작되어 상행대장, 횡행대장, 하행대장, 다음 직장(直腸)이 끝나는 부분이 항문이다.

여기에 이르면 장도 인체의 타부분에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처럼 근육이 진에 가까운 상태로 변한다.

특히 항문에 가까와서는 장의 건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장 중에서는 가장 운동을 하기 좋게 되어있다.

다시말하면 하루에 수백번 반복되

는 대사기능(代謝機能)에 순응하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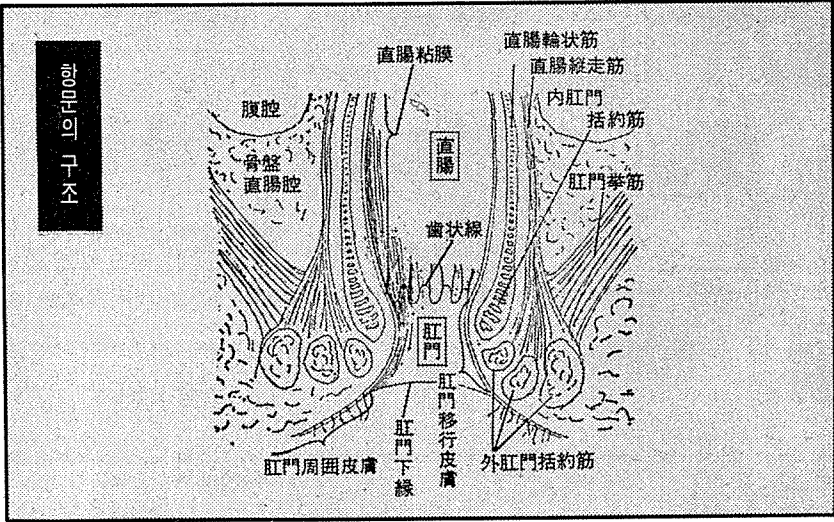
그 결과로 운동을 많이 할수있는 영양보급선이 많이 와 있다. 즉 정맥(靜脈)이 많이 와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위의 정맥은 엉켜져있는데 이것을 해부학적으로는 정맥초라고 부른다. 다시말해 정맥이 많이 분포되어서 한군데에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부학적 특수성에 의하여 항문 부위는 일을 많이 하므로 그 원동력인 혈액이 다른 장에 분포된 혈액보다 많이 와 있다. 이것은 번을 보는데 중대역할을 하는 활양근에 영양을 보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정맥이 또 다른 부위의 정맥과는 다르다. 인체의 혈액은 동맥에서 정맥으로 운반되게 마련인데 정맥을 통해서 삼장에 혈액이 운반되는 것은 정맥에는 혈액이 역행할수 없는 면과 수축작용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문에 와있는 정맥은 이면이 없다시피 적다. 이 결과는 많은 혈액이 저축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적절하게 운반하는 구조가 결함이 되어 있으므로 혈액이 흐르다가 역행을 하게 되므로 이 부위에서 혈액이 굳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혈전(血栓)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으로 인하여 정맥에 혈관축이 생기게 된다.

또한가지는 동맥보다 탄력성이 적으므로 이 부위에는 혈전으로 인한 정맥축이 일층 더 생기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치질이 항문에 많이 생



기는 이유이다. 또 항문은 많은 인체의 대사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 정맥혹 외에 여러가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즉 항문에 나는 털, 이것은 종기를 발생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또 하나 변을 보면 항문을 닦는다. 이것은 종기를 발생할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든다. 다시말하면 닦는다는 작용으로 세균이 침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문에는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 이염증은 이 정맥혹에 파급되어 아픔을 초래한다. 이 염증은 특히 피곤을 느낄때 더 괴롭게 된다. 염증이 가중되면 정맥혹도 더 커지므로 변이 통과하는 통로는 좁아지고 엷어져 있는데다가 변의 통과로 인해 정맥벽에 손상을 가져오므로 치질이 있을 때에는 대량 소량의 출혈을 동반케 된다.

때로는 전술한 바와같이 이 부위에는 정맥혈이 많이 와있고 또 군데 군데 혈전으로 막혀있으므로 출혈 더 한층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치질 즉 정맥혹은 생겼다 안생겼다하는 것이 만성적이므로 출혈 또한 같게되고 이것이 만성적일때는 빈혈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빈혈은 인체에 타질환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또 한 가지 대단히 드물지만 이 정맥혈과 염증이 특수하게 되어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속크상태까지 될때가 있다.

### 몇가지 주의 사항

「그러면 치질이 발생 하였을때」

1. 항문에 발생하는 병, 앞서 말한 바와같이 항문의 털을 닦는다. 종기가 여러개 모여 한군데 합치면 발진

상태가 되어 더 한층 아프게 된다. 이 탈때에는 그 항문부위를 37도 5분 정도의 온수에 씻으면 이 염증은 많이 쇠퇴된다.

2. 종기가 더 발전하면 농양(고름 주머니)을 만드는데 이 농양이 생기면 타부위와 그 근육의 배열 관계에 특수성으로 발생하면 속히 배농을 하지 않으면 깊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것이 장을 뚫었을 경우 대단히 어렵게 된다. 이것을 소위 치루(痔瘻)라고 하는데 수술적 기술에도 가장 어렵다.

3. 직장은 다른 부위 장보다 손상에 견고하게 되어 있으나 면이 또 각색 다양해서 굳어진다. 설사를 한다하여 이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직장염이라고 한다. 특히 20세~30세의 발육이 심한 연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이것 역시 뒷물질로 많이 호전된다. 그 중에도 변의 강도가 심하여 직장을 크게 손상시켜 비교적 큰 상처가 났을때 이것을 항

문열창이라하여 많은출혈을 일으킨다. 그러나 아픔이 심할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좌약”을 항문에 삽입하면 괴로움은 많이 감소 된다.

4. 기타 항문에는 여러가지 양성 악성암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술한 바와같이 치질이 라함은 항문 정맥에 발생하는 적은 정맥류(靜脈瘤)를 말하는 것으로 치질 자체는 별고통을 주지 않지만 이것이 생기므로써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합병증이 완치되므로써 치질도 나올수 있다고할수 있겠으나 치질 자체는 수술, 기타 방법으로 제거할수도 있지만 또 다시 정맥류가 생기게 되니 나올수 없다고도 할수 있겠다. 그러나 중년여자들이 뒷물질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뒷물질로 항상 항문을 깨끗이 하면 항문에 생기는 병을 많이 예방 할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人体的 數學 ●●

소화액(消化液)

※ 하루동안

침(唾液)	0.5~1.5ℓ
위액(胃液)	1~2ℓ
췌액(膵液)	500~800mℓ
담즙(胆汁)	500~1,000mℓ
장액(腸液)	700~3,000mℓ

호흡수와 맥박수

	호흡 (1분간)	맥박 (1분간)
신생아	35~50	120~140
幼兒	25~35	100~120
세포	20~30	90~110
학생	18~20	80~90
어른	16~18	70
어른	안정시	운동시
남자	50~90	120~130 150~180